

자료제공 : 2026. 8. 6.(목)

이 보도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균형발전본부 광화문광장사업과

광화문광장사업과장	박현우	02-2133-7715
광장정책팀장	조흔지	02-2133-7711
관련 누리집	https://gwanghwamun.seoul.go.kr (광화문광장 누리집)	

사진없음 ☐ 사진있음 ☒ 쪽수 : 5쪽

감사의 정원, 세계가 공감하는 '메모리얼 플랫폼' 도약...누적 10만 명 방문

-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, 개장 80여 일 만에 지하 프리덤홀 누적 방문객 10만여 명 기록
- 북중미 월드컵 남아공 공동응원, 에티오피아 합창단 공연 등 시민과 함께 만든 여름의 추억
- 여름밤 즐기는 '광화문 달빛요가'·가을 감성 가득 '광화문 빛모락 축제' 등 하반기 행사도 풍성
- 市 “감사의 정원, 체험·소통·연대 확장하는 살아있는 메모리얼 플랫폼으로 조성”

□ 지난 5월 문을 연 광화문광장 ‘감사의 정원’이 개장 80여 일 만에 ‘프리덤홀’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. 가족과 학생, 외국인 등 국내외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자유와 평화,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체험하는 서울의 새로운 ‘메모리얼 플랫폼’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.

□ 서울시는 8월 5일(수) 22시 기준 프리덤홀 누적 방문객이 10만 4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. 이는 5월 13일 개장 이후 프리덤홀 방문객만을 집계한 수치다. *집계 : 방문자 AI 자동 집계 시스템(2026.5.13.~8.5./프리덤홀)

○ 서울시는 개장 초기에는 실내 공간인 프리덤홀 방문객만 집계했으며, 지난 7월 9일(목)부터는 지상부 조형물 ‘감사의 빛 23’ 방문객도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.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프리덤홀과 감사의 빛 23을 합한 감사의 정원 전체 방문객은 하루 평균 3,779명이다.

□ 2009년 8월 1일 첫 개장 이후 올해로 개장 17년을 맞은 광화문광장은 2022년 재개장을 통해 보행 면적을 2배 이상 확대하고, 분수 및 녹지 공간을 확충하는 등 시민 편의를 대폭 개선한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.

□ 특히 지난 5월 12일 감사의 정원이 개장한 뒤로는 체험형 역사교육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가족 단위 방문객은 물론 학생, 외국인 등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세계에 알리는 국가상징공간으로 역할을 확장했다.

○ 대표적으로 지난 7월 ‘부산유엔공원’ 자원봉사자 단체는 감사의 정원 프리덤홀을 찾아 6.25 전쟁 참전국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보냈다. 참석자 중 한명은 “감사의 정원을 다녀온 뒤, 프리덤홀에서 봤던 ‘Per non dimenticare (우리가 잊지 않도록)’이라는 이탈리아어 문구가 잊혀지지 않는다”면서 “감사의 정원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, 우리가 미래로 이어가야 할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기억하게 만드는 곳이었다” <박0은/ 17세/ 부산시>”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.

○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학습하려는 학생 단체 관람도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, 8월에는 동해시 청소년센터 등의 방문도 예정돼 있다.

□ 시는 프리덤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10시부터 20시까지 총 12회차에 걸쳐 무료 도슨트 관람을 제공하는 한편, 감사의 정원이 서울 관광의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도슨트 해설 관람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내용은 광화문광장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.

<북중미 월드컵 남아공 공동응원 에티오피아 합창단 공연 등 시민과 함께 만든 여름의 추억>

- 한편, 감사의 정원은 올여름 참전국인 남아공과 함께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응원을 비롯해 에티오피아(참전용사 후손)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특별한 여름 추억을 만들며 단순 관람 시설을 넘어 ‘메모리얼 플랫폼’으로 자리매김했다.
- 지난 6월 대한민국·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공동응원전에는 약 6만 5천여 명*이 모여 스포츠를 통해 양국의 우호와 연대를 확인했으며, 지난 7월에는 6·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에티오피아 ‘강뉴부대’ 참전용사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세대가 지켜낸 나라를 찾아 우리말로 노래를 선물했다. *집계 : 서울시 실시간 인구데이터(6시~13시/6.25)
- 에티오피아 강뉴부대의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은 지난 7월 22일(수) 감사의 정원을 찾아 ‘고향의 봄’, ‘홀로 아리랑’, 부채춤 등의 공연을 통해 관객과 하나 된 마음으로 평화를 노래했다.
- 광화문광장의 낮과 밤을 채우는 다양한 즐길거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. 지난 7월 20일(월) 개막한 「2026 서울썸머비치」와 「광화문광장 여름 상상놀이터」는 도심 속 물놀이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색 피서지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, 매일 밤 광화문광장의 밤하늘을 수놓는 ‘감사의 빛 23’은 서울의 새로운 야경명소로 각광받고 있다.
- 한글분수, 명량분수 등 광화문광장의 분수는 매년 여름이면 아이들의 물놀이장으로 변신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.
- 참전국에 대한 예우와 감사를 상징하는 감사의 정원 지상 조형물 ‘감사의 빛 23’에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조형물에 걸터앉아 매일 밤 20시부터 24시까지 송출되는 레이저 불빛을 감상하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.

<여름밤 즐기는 ‘광화문 달빛요가’·가을 감성 가득 ‘광화문 빛모락 축제’ 등 하반기 행사도 풍상>

- 올 하반기에도 광화문광장은 시민들에게 일상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시민들과 함께한다. 먼저, 여름밤 인기 프로그램인 ‘광화문 달빛요가’는 8월 5일(수)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된다.
- ‘안온한 일상과 감사’를 주제로 진행하는 ‘2026 광화문 달빛요가’는 매년 2,500여 명 이상이 참여하는 광화문광장의 대표 여름 프로그램으로, 올해는 ‘감사요가(영어)’와 ‘임신부·가족요가’ 등을 신설해 참여 폭을 넓혔다. 신청은 지난 7월 31일(금) 14시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를 통해 회차당 150명씩 선착순으로 진행 중이다.
- 오는 10월에는 광화문광장의 가을 감성을 한껏 느낄 수 있는 ‘광화문 빛모락 축제’가, 겨울에는 매년 광화문의 연말을 빛내온 ‘광화문 마켓’이 시민들을 기다린다.
- ‘빛모락 가을축제’는 광화문광장 재개장 해인 2022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가을행사로, 다채로운 공연, 명품 강연,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채워진다.
-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“감사의 정원이 단순한 관람 시설을 넘어,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세대 간 소통과 국제 연대를 확장하는 ‘살아있는 메모리얼 플랫폼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·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”이라며 “광화문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·문화·평화의 상징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붙임	감사의 정원 사진
	
감사의빛23 <운영 : 20~24시>	야간 감사의빛23
	
프리덤홀	광화문광장 - 야간
	
프리덤홀 - 외국인 영상 관람	프리덤홀 - 도슨트 투어 관람